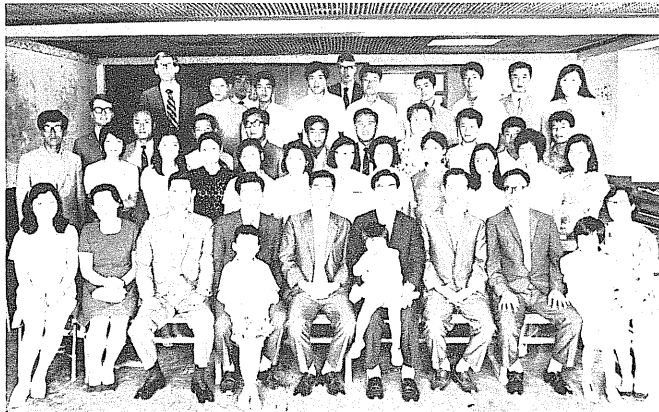




### 마산지부 지부대회

조 건수 장로가 지부장으로 있는 마산지부의 지부대회가 지난 3월 25일(상향회 대회), 27일(노변의 밤), 28일(지부 대회)에 걸쳐 마산 오동동 소재 예배당에서 있었다. 위티커 부선교부장에 의해서 감리된 이들 일련의 대회는 보기 힘든 영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안 승언 지방부장은 말씀을 통해 겸손한 성도라야 하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다고 했으며 위티커 부선교부장은 신권의 터전 위에 서야만 온전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 군산지역 대회 개최

1970년 4월에 개척한 바 있는 군산지역은 지난 6월 20일 선교부장단의 이 호남 형제와 호남 지방부장단을 모신 가운데 지역의 발전을 모색해 보고 지도자의 말씀을 듣는 개척 이래 두번째의 지역 대회를 가졌다. 회원 모두가 강한 신앙과 간증을 가지고 있는 군산 지역의 회원들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된 지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 서중앙 장로회 축구대회 갖다

서중앙 지방부 제1장로 정원회가 주최하는 축구대회가 지난 4월 10일 선교부 인근 경기상업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과의 우정을 위해 장로회가 마련한 이날의 경기엔 장로팀에서 서부지부의 박 순종 형제(53)와 아론신권팀에서 청운지부의 양 병욱 형제(13)가 서로의 득점을 위해 뿔을 차는,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 있는 경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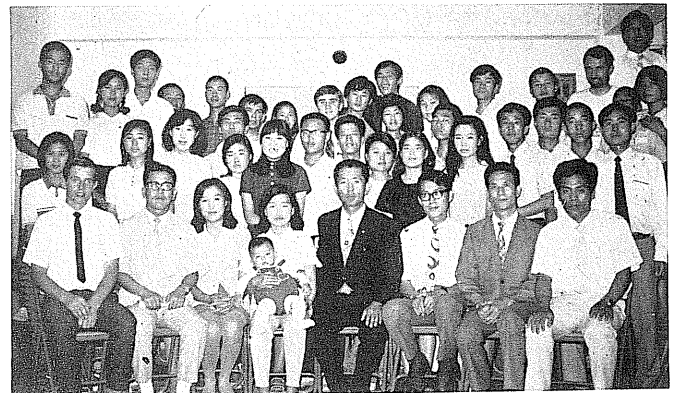
### 서중앙 상향회 단막극 대회 개최

지난 6월 19일 서중앙 지방부 상향회는 산하의 수원지부를 제외한 5개 지부가 참여하는 단막극 경연대회를 가졌다. 동부 지부 상향회 홀에서 가진 이 모임은 이제까지 교회 프로그램에 의하여 로드쇼를 가졌으나 로드쇼가 본래 의도하고 있는 여러가지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므로 지방부 상향회 자체가 취한 조치로서 이번에 제1회의 모임을 가진 것이다. 이날 인천지부는 25분 소요의 "조국"이란 극으로 최 우수, 신촌지부는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아래 사진)로 우수상을 각각 차지하였다.



### 동래-지부대회

6월 24일 연극, 고전무용, 시낭독, 중창 등의 다채로운 순서로 지부대회의 상향회 순서를 가진 동래지부는 27일 선교부장단의 이 호남 형제와 지방부장 안 승언장로를 모신 가운데 훌륭한 모임을 가졌다. 사진: 상향회 대회를 마치고.



### 남부-미혼자를 위한 무용의 밤 개최

남부지방부 상호 향상회가 주최하는 미혼자의 밤이 지난 5월 22일 부산지부에서 있었다. 결혼 적령기의 성도들에게 예절과 건전한 대화를 갖게 하기 위한 이 모임에는 민속 무용을 통한 활동과 지방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